

# 지역출신 최고위원 또 불발... '호남정치' 위상 추락

서삼석·송갑석·민형배 3연속 좌절  
친명 세력 확대·지역 정치력 약화  
전남선 "중진급도 출마 안해" 지적  
"호남민심에만 호소... 한계 드러나"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  
위원 호남 대표 후보 민형배(광주 광산  
을) 의원이 낙선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달  
라진 호남 정치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민 의원의 낙선은 지난 21대  
국회 최고위원서 낙선한 서삼석·송갑석  
의원에 이은 3연속 실패로, 호남 정치 위  
기가 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약 한달 간 진행된 당권 레이스의  
대미를 장식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인  
주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호남 정치 복원"을 외치며 출마에 나선  
민 의원은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에서 호  
남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머무르면서 호남 정치의 한계  
를 여실히 보여줬다. 광주·전남 중진 의원

들 또한 민 의원을 향한 지지를 표명하며  
합심에 총력을 다했으나, 최고위원에 당  
선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 의원은 전북·광주·전남 권리당  
원 온라인 투표 전까지 누적 투표율  
5.99%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지난 4  
일 광주에서 2만1767표, 전남 2만9784표  
를 얻으며 8위에서 5위로 무려 3계단 상  
승하며 반등을 노렸다.

그러나 10일 이어진 경기 전당대회서 1만  
4526표(득표율 7.46%), 11일 대전 1408  
표(7.59%), 세종 414표(6.78%), 17일 서  
울 1만1619표(7.48%), 재외국민 126표  
(8.62%) 등 한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다  
시 7위로 내려앉았다.

민 의원의 낙선으로 호남이 또 다시 지  
역 출신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하면서 일  
각에서는 달라진 호남 정치의 위상이 이  
번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  
가 나온다.

광주 한 기초의원은 "민 의원이 검찰·이  
재명으로 일부 인지도는 있으나, 한 방이  
부족하다. 당 집행부 입성은 '전국적 아이  
콘'이 있어야 하는데 (민 의원은) 딱히 떠

오르는 게 없었다"고 꼬집으며 지역 정치  
인들의 역량 한계를 지적했다.

전남에서는 민 의원의 낙선 여부를 떠  
나, 전남에 중진급 이상 의원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출마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남 지역정가 관계자는 "최고위원 선  
거에는 입지가 있는 재선급 이상이 도전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초선 의원이 많  
이 당선된 광주보다는 중앙과 지역을 연  
결할 수 있는 오랜 정치 역량을 가진 전남  
당선인들이 나서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이 광주서 '민주당의 뿌리  
인 광주·전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부는 대역전의 태풍을 만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발언했는데, 호남의 압도적인  
당원 수로 수도권에 영향을 주겠다는 발  
언은 실망스러웠다"며 "호남 지역의 민주  
당 지지세가 높다고 해서 민심에만 호소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뿐만 아  
니라 정국 현안을 주도하며 정치인으로서  
의 역량 강화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알립니다

##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일본 전지훈련 현장 전합니다



한규빈 전남일보 취재2부 기자가  
18일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로 떠나  
19~22일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일본 전지훈련을 동행 취재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이번 전지훈련은  
자매 구단인 NEC 레드 로켓츠 체육  
관을 베이스캠프로 새 시즌 운곽을 드  
러낼 코보캡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  
가 될 전망입니다. NEC 레드 로켓츠  
와 가에쓰 대학교를 상대로 네 차례  
연승경기와 함께 훈련을 병행하며 장  
소연 신임 감독 체제에서 색깔을 입히  
는데 열중합니다.  
장 감독은 지난 4월 취임 직후 인터

뷰를 통해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단계적인 기반을 다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체  
력과 기본기는 물론 마음가짐과 태  
도, 성실성 역시 강조했습니다.

한 기사는 장 감독이 이은희 수석  
코치와 신요셉 코치 등 새로 수혈한  
지도자들과 페퍼저축은행을 탈바꿈  
하는 과정을 밀착 취재해 현장에서 생  
생하게 전달합니다. 또 연승경기와 훈  
련은 물론 새 얼굴인 바르바라 자비치  
와 장 위, 이원정, 한다혜, 임주은, 이  
예림 등의 이야기도 전할 예정입니다.

한 기사는 19일부터 온라인, 20일  
부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생생한 현장을  
기사와 사진, 영상에 담아 독자들  
께 선물합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도  
구슬땀과 함께 전해질 소식에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

# '압도적 득표'... 더 강력해진 이재명 2기 출범

민생경제·외연확대 방점 둘듯  
'김경수 복권' 당내 통합 숙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이  
재명 대표 중심으로 '1기 지도부 체제' 보  
다 더욱 강력해진 '일극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오는 2026년 지방  
선거 승리와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한  
중도 확장을 위해 민생에 방점을 둔 정책  
과 단일대오에 기반해 정부여당을 압박하  
는 '대여 투쟁'이란 투트랙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출사표에서 '먹  
사니즘'(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란 신조어를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고물가·고환  
율·경기침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

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가 곧 민  
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  
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실정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민생 경제 이슈를 주도하려는 포  
석으로 풀이된다.

중합부동산세(중부세)의 현실화, 금융  
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 전 재검토역  
시 중도중 공약을 위한 카드다.

특히 금투세는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데,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2030세대와  
중산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완화가 필요하  
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 정책위는 예정  
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이 분출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통적 과세 원칙'이라는 민  
주당의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름에도 불

구하고 '이재명식 실용'을 앞세우는 정책  
행보를 보일 것이라 관측이다. 동시에 대  
여 투쟁에도 고삐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비쟁점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  
지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  
의요구권) 행사·야당의 특검 추진 등으로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 관철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  
면서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안'까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  
큼 특검법 수용을 더 거세게 압박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권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특검(특별검사)법안 추진과 함께 국정  
조사, 청문회 등을 추진하면서 여당과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의  
화합은 당내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숙  
제로 꼽힌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사건번호 2024-단736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노미량(72017-2\*\*\*\*\*)  
최후주소 광주 북구 평교로 40, 301동 902호  
(문흥동, 대주아파트)

위 망 노미량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이었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08월 19일  
공고인 : 허성기  
한정승인 수리일 : 2024년 08월 12일  
공고기간 : 2024. 8. 19. ~ 2024. 10. 18.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4-단201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정재용(410603-1\*\*\*\*\*)  
최후주소 전남 무안군 통탄면 사내길 156-12  
위 망 정재용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이었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08월 19일  
공고인 : 신옥희, 정운형, 정성형, 정옥형  
한정승인 수리일 : 2024년 08월 13일  
공고기간 : 2024. 8. 19. ~ 2024. 10. 18.  
채권신고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통탄면 사내길 132-28

**신월현대, 신월한화, 신월사론, 신월조합 태양광 발전시설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전소의 명칭  
신월현대, 신월한화, 신월사론, 신월조합 태양광발전소
- 발전소 위치  
해남군 북일면 금당리 661-1, 661-2, 661-3, 661-4, 661-5, 661-6, 661-7, 661-8, 661-9, 661-10, 661-11, 661-12, 661-13, 661-14, 661-15, 661-16, 661-17, 661-18, 661-19, 661-20, 661-21, 661-22, 661-23, 661-24, 661-25, 661-26, 661-27, 661-28, 661-29, 661-30, 661-31, 661-32, 661-33, 661-34, 661-35, 661-36, 661-37, 661-38, 661-39, 661-40, 661-41, 661-42, 661-43, 661-44, 661-45, 661-46, 661-47, 661-48, 661-49, 661-50, 661-51, 661-52, 661-53, 661-54, 661-55, 661-56, 661-57, 661-58, 661-59, 661-60, 661-61, 661-62, 661-63, 661-64, 661-65, 661-66, 661-67, 661-68, 661-69, 661-70, 661-71, 661-72, 661-73, 661-74, 661-75, 661-76, 661-77, 661-78, 661-79, 661-80, 661-81, 661-82, 661-83, 661-84, 661-85, 661-86, 661-87, 661-88, 661-89, 661-90, 661-91, 661-92, 661-93, 661-94, 661-95, 661-96, 661-97, 661-98, 661-99, 661-100
- 사업 구역의 면적  
총 면적 : 약 529,154㎡
- 발전사업의 내용  
발전설비용량 - 신월현대 : 35,000kW  
- 신월한화 : 35,000kW  
- 신월사론 : 5,000kW  
- 신월조합 : 5,000kW

사업개시예정일 : 2026. 01. 01.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발전사업신청자  
신월현대 : 주식회사 현대솔라텍  
신월한화 :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이  
신월사론 : 사론 태양광발전소  
신월조합 : 해남신월신재생에너지주주인협동조합
- 의견제출기간  
2024년 08월 19일 ~ 2024년 09월 01일(14일간)
- 의견제출방법  
메일 : hds3888@daum.net  
전화 : 061-323-5000  
팩스 : 061-323-6000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 08. 19

1. 발전사업의 명칭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2. 발전사업의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저수지 유흥수면 일원
3. 발전사업의 면적	약 803,600㎡
4.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발전용량 : 97.8MW 2) 설비용량 : (수상)태양광 발전소 3) 사업개시예정일 : 2026년 예정 4) 사업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예정
5.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나주호 배꽃봄은 햇빛발전소(주) (최대주주 : 현대엔지니어링(주))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2024년 08월 25일까지) 2)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 -우 편 : (0305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별관 현대엔지니어링 신재생사업2팀 -전 화 : 02-2134-3007 -팩 스 : 02-2038-6436 -전자메일 : ryujh@hec.co.kr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